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왕이신 하나님 섬기기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져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백성들은 죄를 범하며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단순히 약탈을 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는지,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웅덩이와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에서 먹을 식량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과 소 그리고 낙타 등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함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런 열악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기드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기 위해 찾아 왔습니다.

기드온이 심약한 사람이라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

았기 때문인데 대게 포도주 틀은 포도원 안에 위치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아무래도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원 쪽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자신의 밀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지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자 기드온의 반응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드온의 이런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용맹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던 기드온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표징을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염소 고기와 무교 전병 그리고 국을 반석 위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것들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는데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지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밤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 버리실 것을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기드온은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일생을 통하여 지금 기드온이 구하는 것 같은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기적을 지금 기드온은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도 하셨고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땅에 이슬이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어쩌면 심약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신앙적으로 회의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의 기드온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수 많은 사람들을 돌려 보내시고 오직 남아있는 3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을 때 강한 미디안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치러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강한 미디안 군대를 치러가는 데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가지고 간 것은 오직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뿐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며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마도 지금 이러한 무모한 전쟁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기드온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감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까지도 잡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삿7:23)"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며 모든 것 위에 존재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분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기드온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